

## 디자이너 되기 (2) - 포스트모더니스트 디자이너들

송 주 영 (미술교육연구가, 전시기획자)

지난 호의 밝혔듯이 이 글은 기술융합을 통한 ‘4차 혁명’을 겪는 우리에게 필요한 “크리에이티비티 (creativity)”를 네 가지 다른 디자인 철학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호 첫 번째로 만났던 모더니스트 디자이너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 ‘프루이트-아이고’ - 아이고 망했다! 모더니즘!

1954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는 도시화 열기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남부지방에서 올라온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이 다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심 가까운 곳에는 고급주택 외에는 슬럼가 밖에는 없는 상태였다. 주정부는 그 슬럼가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단지를 짓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11층 높이의 아파트 총 43개 동 안에는 2,700 가구, 약 13,000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주거단지, ‘프루이트 아이고 (Pruitt-Igoe)’ 임대아파트 단지가 세워졌다. 당시가 1954년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로도 큰 화제를 불러 모았고, 모더니즘 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사회학자와 심리학자의 자문을 받아가며 설계한 이 단지는 미국건축가 협회의 상을 받으며 그 화려한 역사를 시작했다.

‘형태’면에서 보자면 ‘프루이트-아이고’는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의 유명한 세 가지 명언에서 틀린 계획이 아니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호에 살펴 본 바 있는) 루이스 설리번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 그리고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적을수록 많다 (Less is more)”에 외형적으로 충실했다. 대규모 인원의 수용이라는 목표에 맞도록 효율적인 고층 건물들에 장식적인 요소 또한 충분히 배제하였다. 아파트 복도는 좁게 설계됐고 모든 공간이 기능적으로 배치됐다. 낙서 방지를 위해 벽은 타일



로 처리됐고 각종 조명 시설에 도난 방지 장치도 설치됐다. 요즘으로 치면 초호화 아파트였다. 여기에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명제, “집은 거주를 위한 기계다(The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라는 말처럼,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거대한 기계가 되어 우리 인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주리라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과 달랐다. 결과는 실패였다.

프루이트-아이고는 입주가 시작된 이후부터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파괴됐고 유리 파편과 쓰레기 더미가 사방을 덮였으며 수도와 전기도 끊겼다. 아파트 곳곳에서 절도, 강간 사건이 끊이지 않았으며 마약 거래 장소로까지 전락했다. 프루이트-아이고는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결국 20년 세월이 채 지나지 않던 1972년, 세인트루이스 주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할렘가로 전락해버린 ‘주거를 위한 기계’를 다량의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만다. 폭파 장면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로 보도되었다. 1977년,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자신의 저서,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쁘게도 근대 건축은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32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의 프루이트-아이고 공공주택 단지의 폭파와 함께 일거에 사망했다.” 그는 모더니즘 건축은 실패했노라고 선언하였다.

‘프루이트 아이고’는 입주자들이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전무했다. 광장이나 공원은 커녕 사람들이 어울려 산책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도 없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기능’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입주자들의 상호작용은 안중에도 없는 포로수용소였던 셈이다. 결국 “집을 기계 따위로 보는 비인간적인 설계”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 지점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었다.

## 저항과 복제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지겹도록 들었지만 정작 그 누구도 몇 마디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애매한 말이다. 역사를 기술(記述)해야 하는 우리에게 아직 동시대인 탓도 있겠지만, 모더니즘 이후에 대한 설명은 입장에 따라 매우 여러 갈래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안티(anti)와 애프터(after)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보려 한다.

첫 번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강한 저항이다. 모더니즘이 신봉하던 절대신(神), 이성, 이상세계(이데아), 자연의 법칙 등 모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이다. 프루이트-아이고의 붕괴 사건을 두고 찰스 젠크스는 “모던 건축의 사망”이라고 했고, 로버트 벤투리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경구를 패러디하여 “적을수록 지루하다 (Less is bore)”고 조롱했다. 쉬운 비유를 들자면, “이봐! 신사라면 모자를 이런 식으로 써야 하네!”라며 원칙과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이 모더니스트라면, “웃기는군! 내가 모자를 어떤 식으로 쓰던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심지어 나는 모자 따위는 쓰지 않겠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 보면 되겠다.

두 번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마저 흡수하여 ‘복제’해버리는 다면체의 얼굴로 나타난다.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는 모든 것이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공기처럼 떠다니는 ‘가짜들의 시대’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기호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simulation) 이론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더 이상 모방할 실재(이데아, 원전)가 없어지고 무수한 복제품과 대체물이란 불리는 시뮬라크라(simulacra)가 더 실재 같은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 극실재 또는 과잉현실)를 생산한다는 이론이다. 쉬운 비유를 들자면, 물건을 담은 기능을 가진 ‘가방’에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샤넬 마크를 붙이면 (실사 그것이 진품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방이 아니게 된다는



(좌로부터) Post Office (Michael Graves), SunTrust Bank (Robert Venturi & Denise Scott Brown), The Old Town Hall (Philip Johnson)

이치다. 복제기술을 활용한 미국의 팝아트(Pop-art)의 유행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흔해빠진 광고물의 일부를 확대한 큰 캔버스가 ‘싸구려’를 벗고 또 다른 ‘고급스러운 예술’로 바뀌었다. 이것은 모더니즘을 무력화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과 복제로 장전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공격은 그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은 애매한 용두사미의 모습을 하고 만다. 모더니즘에 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은 모호했으며, 저항하고자 하는 대상마저도 시시때때로 달라졌다. 대중적인 저급함으로 고급 상류문화를 공격했던 키치(kitsch)예술은 오히려 더 어렵고, 더 비싸게 팔렸다. 과거 이성주의로 일관했던 모든 모더니즘의 계획들을 향해 신성한 새로움이라며 쿠데타를 자처했으나, 결국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 셀러브레이션, 자본권력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내연관계

‘프루이트-아이고’가 입주 20년도 채 되지 않던 때에 다이너마이트의 폭음과 함께 사라졌던 것과는 달리, 월트 디즈니사가 미국 플로리다에 세운 대규모 주택단지인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은 올해로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한창이다. 1996년에 완공된 셀

러브레이션 주택 단지는 현재 약 9,000 여 명의 인구를 갖춘 도시로 성장했다. 디즈니사는 로버트 벤투리, 데니스 스코트 브라운(Denise Scott Brown),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찰스 무어(Charles Moore), 알도 로시(Aldo Rossi) 등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가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동양대 백해천 교수는 『열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디자인하우스, 2004)에서 셀러브레이션 주택 단지는 “물질적 풍요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미국의 1950년대에 대한 향수를 건축적 시뮬라크라로 재생해 냈다”고 하면서, 90년대 까지도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이론에 비판으로 일관했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자본권력의 상징인 ‘디즈니랜드’와의 결합은 “포스트모던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한다. 포스트모던 건축 이론가인 지오프리 브로드벤트(Groffrey Broadbent)가 월트 디즈니사를 가며 쓴 미국 상업 자본주의의 실질적 권력자라며 비판했기 때문이다.

셀러브레이션은 미국의 물질적 풍요시대에 대한 향수를 건축에 담았다. 도시 인근에 대형 오피스 빌딩 타운을 조성해 주민들의 일자리와 주거를 가깝게 하였다. 디즈니사는 셀러브레이션이 일과 삶이 통일되는 작은 유토피아를 위한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셀러브레이션의 건물들은 과거 전원 도시에 자리했



알도 로시의 셸러브레이션 관공서



이탈리아 피사에 있는 캠프 산토(Campo Santo) 묘당



알도 로시의 관공서



주제페 테라니의 '까사 델 파쇼 (Casa del Fascio)

던 주거의 외관을 가지며, 단지 전체가 보행 위주의 통행 패턴으로 개발되었다. 70~80년대에 흔했던 미국의 햄버거 가게의 모습을 ‘차용’하는 외관의 건물, 벽면과 기둥을 ‘해체’한 건물 등으로 꾸며진 셸러브레이션은 포스트모던 건축의 전시장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건축가, 알도 로시의 관공서는 포스트모더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철학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세운 관공서는 ‘무덤’과 ‘독재자’의 모습이다. 이탈리아 피사에 있는 대형 묘당인 캠프 산토(Campo Santo)의 외관, 그리고 독재자 무솔리니를 위해 세워진 ‘까사 델 파쇼(Casa del Fascio, 일명 파시스트 궁전)’을 적절하게 패러디하여 ‘권력자’인 디즈니를 위한 ‘무덤’으로 은유하였다. 알도 로시는 “어쩌다 건축가가 되어버린 시인”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다.

## 다시 동굴벽화 앞에 서다

동굴벽화에서 자신과 짐승을 구별하여 ‘인간’임을 확인했던 인간은 이성의 권능과 진보의 힘을 믿으며 진화하려 했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모더니스트이

기도 했으며, 신념을 공중분해시키는 거친 포스트모더니스트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려 했다. 순진한 모더니스트로 불렸던 르 코르뷔지에의 “집은 주거를 위한 기계”라는 말을 두고 비인간적이라고 비아냥댔던 포스트모더니스트조차 “인간적인 건축”에 대한 답을 쉽게 내놓지 못했다. 참된 인간을 고민했던 모더니스트와 포스트모더니스트, 그들의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대결 속에서 우리는 획일화의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대문명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것에 너그러워졌고, 혼용과 융합에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AI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격파하는 현장을 목격하며 또 다시 동굴벽화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쩌다 인간이 되어버린 사이borg”라는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신과 인공지능을 구별하여 ‘인간’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인간성, 즉 휴머니즘의 정의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다. 다음 호에서 휴머니스트 디자이너들을 만날 예정이다.